

고진영 · 박성현 · 이정은 여자골프 세계 1~3위 싸움이

지난주 4위였던 이정은6, 1계단 오른 3위...개인 최고랭킹

고진영, 10주 연속 1위 키고 박성현도 2위 유지...사상 최초

한국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1~3위를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달 30일자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지난주 4위였던 이정은(23·대방건설)은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3위는 이정은의 개인 최고랭킹이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은 10주 연속 1위를 지켰고 박성현(26·솔레이)은 2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랭킹 1~3위를 모두 한국 선수가 차지하게 됐다.

2006년 만들어진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특정 국가 선수들이 1~3위를 모두 휩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2017년 9월초 세계랭킹에서 유소연(29·메디힐)이 1위, 박성현이 2위를 마크하며 단일 국가가 1~2위를 석권하는 사상 첫 사례를 써낸 바 있다.

이번에는 이정은이 세계랭킹 3위에 오르며 그 기록을 '3'으로 늘렸다.

지난주 3위 렉시 톰슨(미국)은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6

오른 8위다.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 박인비까지 10위 내에는 한국 선수 총 4명이 포진했다.

29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서 시즌 2번째 우승을 차지한 허미정(30·대방건설)은 17계단 오른 23위를 마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3차 연장 접전 끝에 시즌 2승을 신고한 신인 조아연(19·블랙)은 13계단 상승한 36위에 자리했다.

4위로 1계단 밀렸다. 박인비(31·

KB금융그룹)는 전주보다 2계단

류현진 활짝 웃고, 강정호 울고...최지만·추신수 선전

희비 엇갈린 '코리안 메이저리거'...오승환은 삼성 복귀



류현진



강정호

2019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일정이 30일(한국시간)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올 시즌은 코리안메이저리거들의 결과물 차이가 두드러졌던 해로 꼽힌다. 류현진(32·LA다저스)이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최지만(28·탬파베이)도 중심타자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가운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 역시 베테랑으로서 제 역할을 해냈다.

반면 강정호(32·전 피츠버그)는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고 부상과 부진이 겹쳐 고전한 오승환(37·삼성)은 국내복귀를 택했다.

이중 류현진은 코리안 메이저리거를 넘어 리그 전체에서도 단연 빛나는 활약을 선보였다. 29경기에 등판해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한 류현진은 내셔널리그를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평균자책점이 가장 낮은 투수로 이름을 새겼다.

시즌 막판까지 제이콥 디그롭(뉴욕 메츠)의 추격이 있었으나 끝까지 선두를 수성하며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메이저리그 타이틀 홀더로 빛났다.

류현진은 전반기 동안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유력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했다. 비록 지난 8월 잠시 슬럼프를 겪으며 현재는 유력후보에서 내려온 상

태지만 국내의 언론에서는 여전히 류현진의 수상을 기대하는 등 모두가 인정할 만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다저스의 새로운 에이스로서 자리잡은 류현진은 이제 포스트시즌 등판을 정조준한다.

최지만 역시 지난 2016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탬파베이의 중심타자로 급부상하며 타순을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낸 최지만은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19홈런 63타점 54득점을 기록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한 방도 몇 차례나 날리며 팀이 6년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베테랑 타자 추신수는 15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5 24홈런 61타점 93득점을 기록했다. 24홈런은 추신수의 개인 한 시즌 최다홈런 신기록이다.

이번에도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베테랑으로서 체력적인 부담이 무색하게 여전한 관록을 증명했다.

추신수는 내년, 7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낼 예정이다.

반면 강정호는 끝내 재기에 실패했다. 국내에서의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미국 현지 비자발급 거부로 인해 앞서 2시즌을 날린 강정호는 올 시즌 피츠버그와 1년 단기계

약을 맺으며 부활을 노렸으나 결국 아쉬운 결말을 맞이했다.

시범경기 홈런 1위에 올라 기대를 높인 강정호는 정작 시즌에서는 실망스러운 타격내용을 선보였고 정확도와 세밀함에서 아쉬움을 노출했다. 피츠버그는 인내하며 기다려줬지만 결국 반등하지 못한 강정호는 타율 0.169 10홈런 24타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지난 8월 방출됐다.

이후 한때 밀워키 브루어스와 계약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종 실패한 상태다. 강정호는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메이저리그 4시즌 째를 맞이했던 오승환은 이번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3승1패 평균자책점 9.33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시즌 중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뒤로는 콜로라도로부터 방출됐다.

올 시즌으로 끝으로 콜로라도와 계약이 마무리 된 오승환은 이후 수월 일정을 잡으며 국내복귀를 꾀했고 지난 8월6일 KBO리그 친정팀 삼성과 1년간 6억원에 계약했다.

다만, 과거 불법도박 혐의로 KBO리그 72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남아 있던 오승환은 이를 적용받아 올 시즌 프로야구는 뛰지 못했다.

이 기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오승환은 징계가 풀릴 2020시즌 5월 이후를 위해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1

손가락 욱설 김비오, 자격정지 3년에 벌금 1000만원

캘리리리를 향한 '손가락 욱설' 논란을 일으킨 김비오(29·호반건설)가 앞으로 3년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협회)는 1일 경기도 성남 협회 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비오에 대해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징계는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돼 2022년 9월30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김비오는 오는 3일 열리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비롯해 남은 KPGA 주최·주관(공동주관 대회 포함)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김비오는 올해 12개 대회에 출전해 시즌 2승을 거두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를 달렸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2019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서 거둔 모든 기록 순위에서 제외된다.

김규훈 KPGA 상벌위원장은 "프로 자격을 갖춘 선수로서 광장히 경솔한 행동을 했고 이에 합당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가 끝난 뒤 반성과 사죄의 뜻을 보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KPGA의 모든 회원과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